

중국 고대사 연구의 현황과 추세

李學勤(清華大學, 中國, 北京)

<目次>

- I. 중국의 고대사(古代史) 중시의 전통
- II. 중국 고대사의 시간적 범위
- III. 중국 고대사의 공간적 범위
- IV. 동주시대(東周時代) 역사와 문화의 연구
- V. 상(商) 후기에서 서주(西周)까지의 역사연구
- VI. 하(夏)에서 상(商) 전기까지의 역사연구
- VII. 하(夏)이전의 역사에 대한 탐색
- VIII. 중국 고대사 연구의 연대학(年代學) 문제

I. 중국의 고대사(古代史) 중시의 전통

중국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이며, 또한 상당히 오래된 역사문헌(歷史文獻)과 역사교육의 전통을 지닌 국가이다.

전문적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직무를 담당한 사관(史官)은 중국에서는 이미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출현하였다. 여러 문헌의 기록에 의하건, 이러한 사실은 기원전 3천년 전에 존재했다는 ‘인문비조(人文鼻祖)’라고 불리는 황제(黃帝)의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설사 이러한 견해가 증명할 수 없는 단순한 신화와 전설이라고 인정한다 해도, 은허(殷墟)에서 출토된 갑골문(甲骨文) 자료들 통해서 최소한 기원전 13세기의 상(商)나라 조정에서는 이미 ‘사(史)’나 ‘작책(作冊)’과 같은 사관이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관이나 혹은 이와 관련된 일을 맡은 관리가 주로 교육과 연관된 업무에 임용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에 발견된 서주시대(西周時代) 초기의 청동기인 영중방정(榮仲方鼎)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이 청동기의 명문(銘文)에는 영중(榮仲)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주(周)나라 왕이 설립해준 학교에서 왕자나 제후의 자제들 가르쳤음을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영중(榮仲)은 바로 '사(史)'의 씨족(氏族) 출신이다.

그리고 춘추시대(春秋時代)에 이르면, 각종 체재(體裁)를 가진 역사문헌이 교육에 교재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국어(國語)》 <초어(楚語)>의 기록을 보면, 초(楚)나라 장왕(莊王)이 사미(士美)를 태자의 스승으로 명하였는데, 사미가 현대부(賢大夫)인 신숙(申叔)에게 이에 대한 가르침을 부탁하자 신숙은 태자의 교육과목에 대해 일러주었다. 그 중에서 '춘추(春秋)'는 사서(史書)이고, '세(世)'는 족보이며, '어(語)'는 《국어(國語)》와 같은 제후국의 기록이고, '고지(故志)'는 지난 날의 성패를 담은 전문적인 기록이다. 이러한 교재가 모두 역사문헌에 속하는 것으로 봐서 교육에서 역사문헌이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역사에 대한 중시가 중국 전통문화의 일관된 특징이었다. 옛날에는 학자의 대부분이 경사(經史)를 함께 중시할 것을 강조하여, 심지어 독서를 할 적에는 반드시 "기수(奇數)의 날에는 경서(經書)를 읽고, 우수(偶數)의 날에는 사서(史書)를 읽는다."라고 규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교재인 '몽학(蒙學)'에도 역시 역사와 관련된 지식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읽혔던 아동교재인 《삼자경(三字經)》을 보면, 역사적인 내용을 서술한 비중이 거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삼자경(三字經)》을 일반적으로 '소형의 강목(綱目)과 통감(通鑑)'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곧 사서(史書)의 축소판이라는 의미이다.

중국에서 역사를 중시하는 전통은 특히 중국역사의 시작인 고대사 부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것은 역사나 문명이 고대에서부터 비롯되었으므로 현재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서양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나 로마, 심지어는 근동(近東)의 고대사를 탐구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상으로, 중국 고대사의 연구는 현대 중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II. 중국 고대사의 시간적 범위

위에서 필자는 이미 중국의 고대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였는데, 그 의미가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대(古代)’라는 용어와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홍콩이나 대만을 포괄하는 중국에서 말하는 ‘고대(古代)’라는 말은 오늘 우리의 학술회의장에서 토론하고자 하는 ‘Ancient China’가 아닐 뿐만 아니라 미국의 몇몇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불교전래 이전의 중국을 지칭하는 ‘Early China’도 아니다. 중국에서 많은 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고대’라는 용어는 단순히 ‘근대(近代)’라는 말의 상대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의 시간적 범위가 무척 긴 편이다.

주지하다시피, 오랫동안 중국 학술회에서는 서기 1840년에 발생한 아편전쟁(鴉片戰爭)을 중국 근대의 시작으로 간주하여 이보다 앞선 시기는 모두 ‘고대로 보았다. 따라서 명(明)나라와 청(淸)나라의 후기 이전이 모두 ‘고대의 역사에 속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재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몇 년간에 중국의 적잖은 근대사 연구학자가 이러한 관점을 달리 하여 1911년에 발생한 ‘신해혁명(辛亥革命)’을 ‘근대의 기점으로 봐야 한다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만약 이렇게 되면 청(淸)나라의 전체가 모두 ‘고대에 속하게 되는데, ‘고대의 역사가 이처럼 길어진다면 틀림없이 연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주지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 세기 50, 60년대에 중국에서는 ‘고대사 시대구분 문제와 관련된 토론’이 유행하여, 위에서와 같은 ‘고대의 개념은 광의(廣義)로 보았다. 그 당시 토론의 주된 이론적 기초는 마르크스가 주장한 원시사회(原始社會), 노예사회(奴隸社會), 봉건사회(封建社會), 자본주의사회(資本主義社會), 공산주의사회(共產主義社會) 등과 같은 다섯 가지 생산방식(生産方式)에 따른 사회형태론(社會形態論)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초점은 중국역사가 언제부터 노예사회에서 봉건사회로 전환되었는가 하는 데 있었다. 그래서 서주봉건론(西周封建論), 전국봉건론(戰國封建論), 진한봉건론(秦漢封建論), 위진봉건론(魏晉封建論) 등과 같은 견해가 대두되어 서로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그러다가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이 끝나고 중국의 학자들은 다시 중국역사에서 각 시기의 특색과 실상을 깊이 연구하자는 풍토를 강조하게 되었다. 그래서 통사(通史) 편찬이든지 전문 학술연구이든지 학자들 사이에서 공통된 하나의 인식이 형성되었는데, 곧 진(秦)나라가 기타 육국(六國)을 통일하고 제국(帝國)을 건립한 역사적 사실을 중요한 분기점으로 삼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 시기를 전후로 하여 중국의 역사는 사회, 정치, 문화 등의 각 방면에서 각기 다른 뚜렷한 성질을 띠게 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후부터 학술계에서는 진(秦)나라 이전의 역사를 일반적으로 ‘선진사(先秦史)’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 시기는 영어로 ‘Ancient China’의 역사단계에 해당한다. 그리고 최근에 열린 중국 선진사학회(先秦史學會)의 학술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토론을 펼치기도 하였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오늘 우리의 학술회의 토론주제가 ‘선진시대(先秦時代)의 중국’이므로, 중국어로 ‘중국의 고대사(古代史)’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이렇게 해야 광의로 사용되는 ‘고대(古代)’라는 용어와의 혼동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중국 고대사의 공간적 범위

위에서 이미 중국 고대사의 시간적 범위에 대해 언급했으므로, 다음으로는 중국 고대사와 관련된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부분에서도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이후의 중국학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진전이 있었다.

전통적으로 중국 고대사에 대한 기술은 대체로 황하유역(黃河流域)의 중원지역(中原地區)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데에 주요 주안점으로 두었다. 이러한 ‘중원중심론(中原中心論)’의 견해는 그 출발에 원인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史記》의 <貨殖列傳>에 이르기를, “옛날에 당요(唐堯) 사람은 하동(河東)에 도읍하였고, 은(殷)나라 사람은 하내(河內)에 도읍하였으며, 주(周)나라 사람은 하남(河南)에 도읍하였다. 이 삼하(三河)를 아울러 보면 천하의 중심에서 마치 솔의 발과 같으니, 왕이 된 이가 옮겨 산 곳이었다. 건국하여 각기 백년천년을 누렸다.”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우순(虞舜), 하(夏), 상(商), 주(周)를 일컬어 ‘사대(四代)’라고 하는데, 이 사대의 정치 중심지가 모두 중원지역의 핵심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연히 ‘중원중심론’의 대두에 상당히 유력한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 외에도 ‘중원중심론’은 중국 전통문화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유학사상(儒學思想)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유가사상을 처음으로 주창한 공자(孔子)는 주(周)나라 왕실이 쇠하고 제후가 할거할 무렵에 태어나서 ‘안은 화화(華夏)이고 밖은 이적(夷狄)’이라고 역설하면서 그가 편찬한 《춘추(春秋)》경전에 이러한 입장을 관철하였다. 그의 이러한 관점은 오랜 시간 동안 존재한 역사적 원인으로 말미암아 줄곧 후세 학자들에게 전해지면서 결과적으로 화하(華夏) 이외의 민족이나 지역을 비하하는 역할까지 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원중심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자신이 자각하든 못하든 충분히 이러한 견해의 굴레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고고학(考古學) 분야에서의 ‘중원중심론’은 초기의 발굴작업과 관련된 한정된 공간적 범위로 인한 결과로 빚어졌다. 2차대전 이전의 중국 고고학 발굴은 중원지역에 주로 집중되었기 때문에, 중원지역 이외 지역의 고고학적 문화에 대해서는 지식이 거의 부족한 편이었다. 그래서 중원지역 이외의 지역에 비교적 발달된 문화가 존재할 수 있으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줄곧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이와 관련된 한 가지 좋은 예가 바로 사천성(四川省) 성도평원(成都平原)에서 발견된 삼성퇴(三星堆) 문화이다. 일찍이 1929년에 (혹은 1931년이라고 함) 성도 북쪽에 위치한 광한(廣漢) 월량만(月亮灣)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땅을 파다가 옥석기(玉石器)가 묻힌 구덩이를 발견하였는데, 이 구덩이에서 벽(璧), 규(圭), 장(璋), 종(琮)과 같은 유물이 출토되었다. 1934년 화서대학(華西大學) 박물관의 학자들이 이 지역의 유물발굴과 정리작업을 하였는데, 대부분 학자들이 사천지역(四川地域)에는 오랜된 문화가 없을 것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이 유물들을 한대(漢代)의 문화에 속한다고 단정하였다. 그나마 박월한 식견이 있었지만, 여전히 ‘주(周)나라 초기’ 유물로 추정하였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 유적지가 최근까지 고고학자들에 의해 여러 차례 발굴이 시도되었는데, 특히 1986년에는 월량만에서 그다지 멀지 않는 곳인 삼성퇴(三星堆)에서 두 기의 유물 구덩이가 발견되어 다량의 청동기와 옥석기 등의 진귀한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때서야 겨우 이 유적지가 상(商)나라의 매우 중요한 한 성터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이러한 예는 무수히 많다.

현재 중국 학술계에서는 이미 중국이 예로부터 다민족(多民族)이자 다지역(多地區)으로 구성된 하나의 국가이며, 또한 중국의 문명은 이러한 다민족, 다지역이 공동으로 빚어낸 것이라는 하나의 일치된 견해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견해의 대두로 인해 중국 고대사 방면의 지역연구도 함께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문명의 시작이 비교적 빠른 지역으로는 오월문화(吳越文化)와 파촉문화(巴蜀文化)가 있고, 문명이 특별히 번영한 지역으로는 초문화(楚文化)를 꼽을 수 있다. 중원지역도 이제 하나의 지역문화로 간주되고 있어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하락문화(河洛文化)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만 이 용어가 포괄하는 지역적 범위는 더 좁은 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토론하고자 하는 중국의 고대사는 마땅히 시야를 넓혀서 당시의 각

지역이나 민족을 모두 포괄해야만 하고, 또한 이렇게 했을 때에만 중국 고대사의 전모(全貌)를 모두 개괄할 수 있다.

IV. 동주시대(東周時代) 역사와 문화의 연구

중국 고대사가 시간적으로 이처럼 길고 그 범위도 또한 상당히 넓기 때문에, 우리는 최 대한 역사자체의 상황과 현재 우리에게 남겨진 자료의 성질에 근거해서 크게 몇 단계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 단계의 시기는 연구방법과 접근이 서로 다르며, 또한 중점적인 문제도 서로 같지 않다.

만약 우리가 기원전 221년에 진(秦)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시기부터 다시 위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춘추시대(春秋時代)와 전국시대(戰國時代)를 포괄하는 동주시대(東周時代)를 하나의 중요한 시기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좀더 엄밀히 말해서 《사기(史記)》 <십이제후 연표(十二諸侯年表)>의 방법을 채택한다면, 이 시기의 상한선은 서주(西周) 말의 공화원년(共和元年)인 기원전 841년이 될 것이다. 따라서 동주시대는 기원전 841년에서 기원전 221년까지 모두 6백20년이 된다.

이 시기의 특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거로 삼을만한 문헌자료가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자면 이 여섯 세기 이상의 시기는 ‘역사(歷史: history)’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으며, ‘ 선사(先史: prehistory)’나 ‘원사(原史: protohistory)’라고는 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현재 《춘추좌전(春秋左傳)》이나 《전국책(戰國策)》이 전해지고 있고, 그 외에도 당대나 조금 후대의 기록과 같은 이 시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의 문헌이 남아 있어 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진시황(秦始皇) 34년(기원전 213년)에 제정 반포된 ‘시서백가어(詩書百家語)’를 금지하는 ‘협서률(挾書律)’을 떠올릴 수 있다. 사실 이것은 진나라에 일찍부터 존재했던 정책의 한 방향이었는데, 《상군서(商君書)》나 《한비자(韓非子)》를 참고하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리고 한(漢)나라에서도 진나라의 이 ‘협서률(挾書律)’ 제도를 계속 계승하다가 혜제(惠帝) 4년(기원전 191년)에 이르러서야 정식으로 이 율령을 폐지시키게 된다. 그런데 현재 지하에서 출토되는 이 시기 무덤의 부장품 서적을 살펴해보면, 대체로 ‘협서률’이 적용되었던 시기의 무덤에서는 이 율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범위

들 거의 넘지 않고 있다. 이들 통해서 보면 이 엄혹한 법령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서백가어(詩書百家語)’의 금지는 동주시대에 형성된 문화성공들 대량으로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해서, 비록 한대의 학자들이 온힘을 쏟아가며 복원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이미 손실된 자료는 거의 다시 복원할 수가 없었다.

그렇지만 다행스런 일은 최근에 고고학 방면의 발굴에서 전국시대의 적잖은 간백서적(簡帛書籍)과 전국시대의 저작을 초록(抄錄)한 다소간의 한대(漢代) 간백이 발굴되기 시작하였는데, 모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귀중한 문헌자료이다. 그 중에서 내용이 가장 풍부한 것으로는, 당연히 호북성(湖北省) 형문(荊門) 학점1호(郭店1號) 무덤에서 출토된 초간(楚簡), 상해(上海) 박물관에 소장된 초간(楚簡), 그리고 호남성(湖南省) 장사(長沙) 마왕퇴3호(馬王堆3號) 한묘(漢墓)에서 출토된 백서(帛書)들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중대한 발견은 마치 지하에 묻혀 있던 도서관을 찾아낸 것과 같아서, 동주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구나 학술(學術) 사상사(思想史) 분야에서는 그 영향을 더욱 크게 미치고 있다.

학점(郭店) 죽간의 주요내용은 유가(儒家)와 도가(道家)의 학술저작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것은 상해 박물관에 소장된 죽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학점1호 무덤의 매장시기는 기원전 300년보다는 더 내려오지 않고, 상해 박물관에 소장된 죽간은 이와 비교해서 대부분이 그 시기가 조금 늦은 편이다. 따라서 이처럼 철학적 성질을 다분히 지니고 있는 작품의 대부분은 아마도 맹자(孟子)나 장자(莊子)도 모두 접했을 것이므로, 이로써 우리는 그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만약 이러한 학점1호(郭店1號)의 초간(楚簡), 상해(上海) 박물관에 소장된 초간(楚簡), 그리고 마왕퇴3호(馬王堆3號)의 백서(帛書)들 현존하는 문헌과 비교했을 적에는, 예로부터 기존의 학자들에게서 위서(僞書)라고 의심을 받아왔던 현존문헌의 대부분이 진서(眞書)임이 증명된다. 예를 들어 《예기(禮記)》와 《대대례기(大戴禮記)》중에 보이는 일련의 편장(篇章)은 실제로 이 죽간들과 동시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것으로 이전에는 공백기(空白期)로만 여겼던 공맹기간(孔孟之間)과 노장기간(老莊之間)의 사상적 맥락의 흐름을 단번에 메울 수가 있었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로 하여금 공자나 노자의 본래 면모에 더욱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역사연구에 있어서도 당연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공맹과 노장의 시대가 중국에서는 경전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는

전체 중국 학술 사상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전목(錢穆)의 《선진제자계년(先秦諸子繫年)》이라는 저서가 동주시대 역사연구에 끼친 중요한 역할을 상기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에게 새로운 자료와 관점의 토대 위에서 이 《계년(繫年)》과 같은 저서를 새로이 정리편찬해낼 수 있는 조건이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본다.

V. 상(商) 후기에서 서주(西周)까지의 역사연구

서주(西周) 말년에서 위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상(商)나라 후기의 왕인 반경(盤庚)이 기원전 1300년 즈음에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안양(安陽)의 은허(殷墟)에 천도한 시기에 이르게 되는데, 이 기간 또한 중국 고대사에서 하나의 커다란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관해 전해 내려오는 문헌은 동주시대와 비교했을 적에 그 수량이 훨씬 적고 또한 대부분이 명확하지 못한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다행히 갑골문(甲骨文)과 금문(金文)의 발견으로 우리가 이 시기 역사의 비밀을 캐는 데 있어 많은 정보들을 제공받고 있다.

은허에서 발견된 갑골문은 1899년에 처음으로 확인되고 감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학술사(學術史)에서 보면 매우 기념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하나의 대사건이다. 현재까지 은허에서 발굴된 갑골 중에서 글자가 새겨진 갑골은 대략 13만여 편 정도인데,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상당히 광범하여 현재는 이미 국제성을 띤 하나의 학문분과로까지 성장하였다. 그러나 서주시대의 갑골은 50년대에 이르러서야 겨우 발견되고 인식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수량면에서 상나라에 비해 훨씬 적기는 하지만 이 서주 갑골 또한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은허 갑골문의 연대는 상나라 무정(武丁)에서부터 상나라 최후의 왕인 제신(帝辛)까지임이 이미 증명되었다. 이 갑골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공헌은 《사기(史記)》 <은본기(殷本紀)> 등과 같은 고문헌에 기록된 상왕(商王)의 세계(世系)가 전반적으로 사실임이 확실히 증명되었다는 것이다. 비록 몇몇 부분에서 교정이 필요하기는 하였지만, 이로써 상나라의 존재에 대해 더 이상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게 되었다. 또한 이 갑골문의 연구는 우리가 이보다 시기가 더 빠른 고대사를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한 출발점을 제공해주었다.

그리고 상나라 때에도 이미 청동기 명문인 금문(金文)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명문이

대체로 짧고 간략한 것에 반해, 서주시대의 금문은 내용이 훨씬 풍부하여 당시의 역사문화 등을 연구하는 중요한 사료(史料)로 인식되고 있다. 그 중에서 명문의 길이가 가장 긴 청동기는 청(淸)나라 때 섬서성(陝西省) 기산(岐山)에서 출토되었고 현재는 대만(臺灣) 타이베이(臺北市)의 고궁박물관(故宮博物院)에 소장되어 있는 모공정(毛公鼎)을 들 수 있는데, 그 명문의 길이가 무려 497字에 달한다. 따라서 학자들은 이 명문의 기록이 거의 《상서(尙書)》의 한 편(篇)과도 맞먹는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 장문의 명문에 기록된 내용은 현재까지도 아직 완전히 해독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서주시대의 금문이 상당량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은허에서 출토된 갑골문처럼 서주시대 주왕(周王)의 세계(世系)에 대한 내용을 제공해주는 완전한 증거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1976년 섬서성(陝西省) 부풍현(扶風縣) 장백(莊白)에서 발견된 사장반(史牆盤)은 그 명문의 기록에서 문왕(文王), 무왕(武王), 성왕(成王), 강왕(康王), 소왕(昭王) 및 목왕(穆王)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었다. 이 청동기는 공왕(共王) 시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아쉽게도 단지 전체 주왕(周王)의 세계(世系)에서 앞부분만 언급한 것이었다. 그런데 2003년 섬서성(陝西省) 미현(郿縣) 양가촌(楊家村)에서 출토된 좌반(佐盤, 어떤 학자는 래반(遼盤)이라고도 함)은 선왕(宣王) 시기의 청동기로써, 그 명문에 목왕(穆王) 이후의 공왕(共王), 의왕(懿王), 효왕(孝王), 이왕(夷王) 및 여왕(厲王)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었다. 마침내 이로써 서주세계(西周世系)의 나머지가 완전히 보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갑골문과 금문의 시대구분은 위와 같은 자료들 이용하여 역사를 탐색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사항인데, 현재 이미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여기에서는 그 상세한 소개를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소개해야 할 것은 그동안 중국의 중점적인 연구 프로젝트의 하나였던 ‘하상주(夏商周) 연대구축 프로젝트(夏商周斷代工程)’에서 이미 금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문역보(金文曆譜)’를 제정하였다는 사실이다. 이 역보가 비록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상적인 성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계속 출토되는 금문의 내용과 배열했을 적에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봐서 현재로서는 가장 적합한 역보자료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서주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VI. 하(夏)에서 상(商) 전기까지의 역사연구

상나라 후기와는 다르게 반경(盤庚)이 은(殷)으로 천도하기 이전의 상나라 전기의 역사에 대해서는 현재 은허 갑골문과 같은 문자적 증거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비록 상왕(商王)의 세계(世系)가 이미 증명되었다고는 하더라도 단지 문헌에 보이는 단편적인 기록에만 근거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나라 전기의 역사에 대해 아는 바가 별로 없다.

이러한 상황이 하(夏)나라의 역사연구에서는 더욱 심한 편이다. 그렇지만 《사기(史記)》의 <하본기(夏本紀)>도 <은본기(殷本紀)>에서와 마찬가지로 하왕(夏王)의 세계(世系)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고, 또한 《세본(世本)》 등의 문헌자료와 서로 비교하면서 개략적이거나 이들 증명할 수 있다. 일찍이 1925년에 왕국유(王國維)가 갑골문에 보이는 상왕(商王)의 세계(世系)를 연구하고 나서 말하기를, “《사기(史記)》에 기술된 상나라의 세계(世系)는 갑골문 복사(卜辭)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데, 비록 약간의 실수는 면하기 어려워도 전체적으로는 큰 오류가 없다. 이로써 《사기(史記)》가 근거로 삼은 《세본(世本)》이 전반적으로 사실기록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은주(殷周) 세계(世系)의 확실성에 근거하여 하후씨(夏后氏) 세계(世系)의 확실성도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추론은 당연히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50년대 초에 고고학자들은 하남성(河南省) 정주시(鄭州市)와 휘현(輝縣)에서 은허시기보다 빠른 상나라 전기문화 유적지를 발견하였는데, 현재 이 유적지는 당시의 도읍지였던 정주상성(鄭州商城)이라는 것에 일반적으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또한 50년대 말에는 ‘하허(夏墟)’ 유적지를 조사하면서 이 정주상성보다도 더 시기가 빠른 연사현(偃師縣)의 이리두(二里頭) 유적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유적지로 대표되는 이리두문화(二里頭文化)는 연대와 지리적 위치로 봐서 모두 하(夏)나라와 일치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문화들 하문화(夏文化)로 여기고 있다. 그 후에 다시 등봉시(登封市) 왕성강(王城崗)에서 이 이리두(二里頭) 유적지보다도 더 빠른 시기의 성터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우(禹)임금이 도읍했던 양성(陽城)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최근에 산서성(山西省) 임분(臨汾)에서 발굴된 도사(陶寺) 성터는 그 연대가 무려 기원전 2600~2200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이곳이 바로 문헌에 보이는 요(堯)임금이 도읍했던 평양(平陽)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나라에서 상나라 전기까지의 연구는 상나라 후기와는 틀림없이 성질이 서로 다르다. 지금도 하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여전히 있는데, 이 사실은 이 방면의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 파고 들어갈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접근방법은 상나라 후기나 서주시대의 연구와는 전혀 다른 각도가 될 것이다.

VII 하(夏)이전의 역사에 대한 탐색

중국의 전통적인 관념은 문명의 시작을 기원전 3000년의 황제시대(黃帝時代)로 잡고, 여기서부터 계산하여 중국에는 오천년에 걸친 문명사(文明史)가 있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사기(史記)》에서는 황제(黃帝), 전욱(顓頊), 계곡(帝嚳), 요(堯), 순(舜)을 일컬어 ‘오제(五帝)’라고 하였는데, 최근에 몇몇 중국 문명의 기원을 연구하는 학자는 기원전 3천년에서 2천년 사이의 이 역사시기를 일컬어 ‘오제시대(五帝時代)’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문헌에 나타나는 오제시기에 대한 역사는 주지하다시피 일찍이 많은 학자들이 후대의 사람이 조작해낸 것이라고 여겼고 또한 실질적인 근거도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일찍이 1909년에 일본의 저명한 학자인 백조고길(白鳥庫吉)은 《중국 고전설의 연구(中國古傳說的硏究)》라는 저서에서 요(堯), 순(舜), 우(禹)가 역사상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임을 부정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요순우말살론(堯舜禹抹殺論)’이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1923년에 시작된 《고사변(古史辨)》(제1권은 1926년도에 출판됨)의 의고(疑古) 경향으로 이와 유사한 토론의 막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중국의 20, 30년대를 풍미한 의고 경향은 문화사적으로 비록 진보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는 하였지만, 고대사와 전설을 부정한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고대사의 진상을 정면으로 탐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여전히 중대한 문제로 남게 되었다. 당시의 어떤 학자는 이러한 의고 경향에서 오는 결함을 지적하기도 하였는데, 왕국유(王國維)가 바로 그 중의 하나였다. 그는 1925년에 말하기를, “의고(疑古)의 허물은 곧 요순우(堯舜禹)같은 인물도 통틀어 또한 의심하는 것이다. 그 회의의 태도와 비평의 정신은 취하지 못할 것이 아니지만, 고대사 자료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라고 하였다. 그는 다시 주장하길, “상고(上古)의 일은 전설과 역사적 사실이 뒤섞여 분간하기 어렵다. 역사적 사실 중에서도 참으로 외관을 꾸밈을 피하기 어려워 전설과 다름이 없는 것이 있고, 전설 중에

서도 또한 가끔씩 역사적 사실이 되는 바탕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의 바탕을 밝히려면 반드시 현존하는 문헌인 ‘중이 위의 자료’와 ‘지하에 묻힌 새로운 자료’들 함께 결합시킨 ‘이중증거법(二重證據法)’을 채택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고대사를 재건하는 일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고, 또한 나중에는 중국 고대사 연구가 고고학(考古學) 및 고문자학(古文字學)과 밀접한 연계를 맺게 되는 하나의 서곡이 되었다.

그리고 문헌기록에 보이는 고대사의 전설에 대해서 현대적 과학의 방법으로 해석을 내린 것이 철학자 풍우란(馮友蘭)의 말을 빌리자면 ‘석고(釋古)’가 된다. 최근에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북경대학의 고고학자인 이백겸(李伯謙)의 논문인 <고고학 시야에서 본 삼황오제 시대(考古學視野的三皇五帝時代)> (《고대文明연구통신(古代文明研究通訊)》, 제36기, 2008년 3월)을 참고할 수 있는데, 그는 아래와 같이 표와 설명을 덧붙였다.

고고학에서 재건한 중국 고대사 체계와 전통사학의 중국 고대사 체계의 대응표

고고학의 중국 고대사 체계	전통사학의 중국 고대사 체계	연대 (B.P)	사회형태	주요 경제생활 방식
구석기시대 초기	유소씨(有巢氏), 복희씨(伏羲氏)	약 200만년 ~ 20만년	유목집단	채집, 수렵
구석기시대 중기	복희씨(伏羲氏)	약 20만년 ~ 4만년	원시집단	채집, 수렵
구석기시대 후기	수인씨(燧人氏)	약 4만년 ~ 1만2천년	씨족(氏族)	채집, 수렵
신석기시대 초·중기	신농씨(神農氏)	약 1만2천년 ~ 7천년	씨족, 부족	수렵, 농업, 목축업
신석기시대 후기	염제(炎帝), 황제(黃帝)	약 7천년 ~ 4천5백년	부락연맹, 고대국가	농업, 목축업, 수공업
신석기시대 말기	전욱(顓頊), 제곡(帝嚳), 요(堯), 순(舜), 우(禹)	약 4천5백년 ~ 4천년	초기 왕국	농업, 목축업, 수공업
청동기시대	우(禹), 하(夏), 상(商), 주(周)	약 4천년 ~ 기원전 221년	후기 왕국	농업, 수공업, 상업
철기시대	진(秦) - 청(淸)	기원전 221년 ~ 서기1911년	제국(帝國)	농업, 수공업, 상업

“비록 두 체계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서로 다르고 또한 위의 표에서 열거한 대응관계가 조금도 오차가 없다거나 혹은 연대가 앞뒤로 조금씩 변동할 여지가 없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지만, 원송이에서 사람으로 분리되고 인류사회가 출현한 이후에는 두 체계 모두 원시 단계에서 진화된 단계로의 발전규칙이 기본적으로 같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로 대응하는 매 큰 단계가 나타내고 있는 특징도 기본적으로 같다. 따라서 고고학에서 구축하고 있는 고대사 체계이든지 아니면 전통사학에 보이는 고대사 체계이든지를 막론하고 모두 자신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다. 고고학에서 구축하고 있는 고대사 체계는 당연히 과학적 근거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문헌기록이 전무하거나 극히 소량이든지 혹은 단순히 입과 귀를 통하여 전해지는 신화나 전설과 같은 형식이 전해 내려준 고대사의 체계도 그 전체가 모두 거짓말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윤달(尹達)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신화와 전설에는 모두 역사적 사실의 바탕이 있어서 모두 나름대로 일정한 정도에서 역사적 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위에 덧씌워진 황당무제한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면, 곧바로 그 합리적인 내면이 드러날 수 있게 된다.”

필자는 이백겸(李伯謙)의 이 문장이 고대사, 특히 원고역사(遠古歷史)를 탐색하고 있는 중국학자의 새로운 경향을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VIII. 중국 고대사 연구의 연대학(年代學) 문제

위에서 이백겸(李伯謙)이 작성한 표를 인용하면서 이미 중국 고대사의 개략적인 연대 윤곽을 언급하였다. 여기서 필자는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상주(夏商周) 연대구축 프로젝트(夏商周斷代工程)’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필자의 박사 지도학생인 한국의 조용준(趙容俊) 동학(同學)의 문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하상주(夏商周) 연대구축 프로젝트(夏商周斷代工程)’는 중국의 ‘아홉 번째 국가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시행된 중점 연구 프로젝트로서, 1996년 5월에 정식으로 시작하여 5여년의 노력 끝에 2000년 10월에는 국가의 공식적인 심사를 통과하였고 또한 장려도 받았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자연과학과 인문 사회과학을 결합하고, 또한 다양한 학제간의 연구방법

을 통해 하(夏), 상(商), 서주(西周)의 연대학 문제들 연구하였다.

역사상 수많은 사건들이 계량적인 방면에서 하나의 척도가 제시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만약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역사자체도 없어지기 때문에, 역사는 시간의 흐름이고 이 흐름 속에서 하나의 계량적 수치를 제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럼, 왜 중국 고대사의 연대학 문제들 연구하게 되었는가? 이것은 중국 고대사가 기타 세계 여러 국가의 고대사와 마찬가지로, 그 정확한 연대는 단지 어느 일정한 시간단계까지만 추산해낼 수 있고, 만약 위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모호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되면 오래된 역사일수록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더욱 적어진다. 만약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십이제후연표(十二諸侯年表)>를 참고하자면, 중국의 역사는 서주(西周) 후기의 공화원년(共和元年)인 기원전 841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미 주지하다시피, 이 해는 주나라의 여왕(厲王)이 폭정을 하여 국민이 여왕을 축출하고 공화체제로 전환하여 집정하던 때이다. 그러나 이 시기보다 더 거슬러 올라간 연대에 대해서는 사마천은 《사기(史記)》 <삼대세표(三代世表)>에서 다만 왕의 세계(世系)를 단위로 기술하였을 뿐 연도를 단위로 삼아 기술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이 생긴 것은 사마천의 당시에 고대사의 연대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만약 사마천 자신의 서술을 살펴해보자면, 그가 참고했던 몇몇 세계(世系) 기록에 '황제(黃帝) 이래로 모두 재위연도가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했는데, 단지 이러한 연대자료가 서로 모순되고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사마천은 다만 <삼대세표(三代世表)>를 지어 하(夏), 상(商), 서주(西周: 공화(共和) 이전) 삼대(三代)에서 제왕의 세계(世系)만 기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연표들 만들지는 못하였다. 어떤 학자는 《죽서기년(竹書紀年)》이 정확하다고 말하지만, 일찍이 왕국유(王國維)는 이 《죽서기년(竹書紀年)》은 세계(世系)에 관한 하나의 기록이라 사마천도 틀림없이 참고했겠지만, 다만 신중한 고려에서 출발하여 사마천도 달리 인용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중국의 역사가 단지 기원전 841년까지로만 추산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중국은 5천년의 문명사를 지니고 있는데 《사기(史記)》에서는 단지 기원전 841년까지로만 기록하고 있어서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마천 이후에 역대로 수많은 학자들이 기원전 841년 이전의 연대에 대해서 추정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그 중에서 최초로 연구들 시도했던 학자가 서한(西漢) 말기의 유흠(劉歆)이었다. 이처럼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지만, 그동안 공인(公認)

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전시대의 학자가 연구해 놓은 기초 위에서 최선의 고고학 자료와 과학기술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 연대학 연구에 새로운 공헌을 할 수 있는가는 이미 절박한 필요성을 지니게 되었다.

1995년 봄, 당시 국가 과학위원회 주임을 맡고 있던 송건(宋健)이 먼저 이 과제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그럼, 왜 송건 주임이 이 과제를 제안하게 되었고 다른 고고학자나 역사학자가 제안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송건 주임이 맡고 있던 직무와 관련이 있다. 그는 장시간 동안 과학기술 부문을 책임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중국 과학원(科學院)과 중국 공정원(工程院)의 두 곳에서 원사(院士)로 있었으며, 또한 중국의 역사에 대해 상당히 깊이 있는 지식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외국방문을 하게 될 때마다 항상 외국의 고고학 유적지를 살펴보았고, 또한 외국의 박물관도 견학하곤 하였다. 그리고 그는 외국의 고대문명의 대부분이 이미 상세한 연표가 제작되어 세계적인 공인도 받고 있었지만 중국은 여전히 상세하고 공인된 연표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오랜 시간 동안의 사색을 통해 어떻게 하면 자연과학 기술이 이미 갖고 있는 장점을 이용해서 인문 사회 과학, 특히 역사학이나 고고학 분야의 연구들 지원하여 중국 고대문명의 연대학을 제대로 건립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줄곧 해왔다. 그러던 차에 1995년 9월, 송건 주임은 북경에 있는 중국 고대사와 관련된 역사학자, 고고학자, 고문자학자들 초청하여 이 과제에 대해 좌담을 하였고, 곧바로 '하상주(夏商周) 연대구축 프로젝트(夏商周斷代工程)'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그리고 1995년 연말에는 정식으로 이 프로젝트 과제를 수립하여 국가 과학위원회, 국가 교육위원회, 중국 과학원, 중국 사회과학원, 자연과학 기금회, 국가 문물국, 중국 과학협회 등의 서로 다른 기구의 책임자들로 구성된 책임자 팀을 결성하였다. 그리고 이어서는 스물한 명의 여러 학문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팀을 결성하였고, 네 명의 수석 과학자가 각각 이 전문가 팀의 정(正) 부(副) 팀장을 맡았다. 당시에 이 '하상주(夏商周) 연대구축 프로젝트(夏商周斷代工程)'는 국내외의 사회 각계로부터 상당한 주목을 끌게 되었고, 이 프로젝트 자체는 국가의 '이홉 번째 국가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에 실시하는 가장 중점적인 연구 프로젝트로 책정을 받았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처음에는 9개의 큰 과제와 36개의 전문과제를 설정했는데, 나중에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전되면서 전문과제가 계속적으로 늘어나 2000년에 모든 과제를 종합할 적에는 모두 44개의 전문과제로 늘어났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는 역사학, 고고학, 천문학, 첨단과학 연대

측정 기술 등의 10여개의 학문분야에 두루 걸쳐게 되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자연과학과 인문 사회과학이 총 망라된 하나의 커다란 여러 학제간의 교차연구인 셈이다. 그리고 5년간의 노력 끝에 마침내 2000년 상반기에는 각 과제의 성과를 종합하기 시작하여 《하상주(夏商周) 연대구축 프로젝트 1996~2000년 사이의 단계적 성과보고 간본(夏商周斷代工程1996~2000年階段性成果報告簡本)》을 초안하였고, 2000년 가을에는 국가의 심사까지 통과하였다. 그 후에 이 프로젝트는 각종 연구 보고서나 관련 논문 등을 망라하는 상관된 수많은 연구 성과물을 계속적으로 출판하였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성과보고인 번본(繁本)의 정리편집 작업을 기본적으로 모두 완성하였고, 아마도 머잖은 장래에 곧 정식으로 출판되어 독자들 대면하게 될 것이다.

‘하상주(夏商周) 연대구축 프로젝트(夏商周斷代工程)’에서는 하(夏), 상(商), 서주(西周)의 연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기원전 841년에서부터 역으로 추산하여, 하(夏)나라의 시작을 기원전 2070년으로 보았고, 하(夏)나라와 상(商)나라의 분기점은 기원전 1600년으로 잡았으며, 반경(盤庚)이 은(殷)으로 천도한 시기는 기원전 1300년으로 보았고, 반경 이후의 소신(小辛), 소을(小乙), 무정(武丁), 조경(祖庚), 조갑(祖甲), 능신(廩辛), 강정(康丁), 무을(武乙), 문정(文丁), 제을(帝乙), 제신(帝辛) 등의 연도는 모두 구체적인 연대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상(商)나라와 주(周)나라의 분기점인 무왕(武王)이 상나라의 주왕(紂王)을 정벌한 시기는 이 프로젝트에서는 기원전 1046년으로 잡았고, 무왕 이후의 성왕(成王), 강왕(康王), 소왕(昭王), 목왕(穆王), 공왕(共王), 의왕(懿王), 효왕(孝王), 이왕(夷王), 여왕(厲王) 등의 연도는 모두 구체적인 연대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현재까지 중국 학술계의 여러 학문분야에 걸친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추산해낸 비교적 이상적인 하나의 연표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아직 확정된 결론이 아니며, 이후에 더 많은 상관된 고고학 자료가 발견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 연표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수정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연표가 발표된 이후에 《사해(辭海)》와 같은 출판물에도 이러한 내용이 실리게 되었다.

자세히 비교해 보면, 중국의 이러한 고대사 연표가 고대 이집트의 연표와 매우 흡사함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오제시대(五帝時代)는 고대 이집트의 고왕국(古王國)과 제1 중간기(中間期) 시대와 서로 비슷하고, 하(夏)나라는 고대 이집트의 중왕국(中王國)과 제2 중간기 시기와 상응하며, 상나라는 고대 이집트의 신왕국(新王國)의 번성기와 상

응한다. 그런데 양자간에 매 시기 연대의 상하차이는 기본적으로 1백년을 넘지 않고, 심지어는 20, 30년을 넘지 않기도 한다. 이것은 인류의 발전에 일정한 규칙이 있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하상주(夏商周) 연대구축 프로젝트(夏商周斷代工程)'에서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훨씬 더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시간의 척도를 제시하고 있고, 더욱이 이 척도의 확정으로 인해 우리가 전체 중국 문명사의 기원과 초기발전에 대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 좋은 토대를 만들어주고 있다.

중국 고대사는 전체 세계역사의 한 부분이다. 오늘 이곳에서 열리는 학술회의가 중국 고대사를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기회들 통해 한국과 세계 각국에서 오신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끝으로, 위에서 필자가 논한 내용에 대해 여러분의 아낌없는 가르침과 비평을 희망한다.

중국 고대사 연구의 현황과 추세

李學勤(清華大學, 中國, 北京)

【국문초록】

중국에서 역사를 중시하는 전통은 특히 중국역사의 시작인 고대사 부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것은 역사나 문명이 고대에서부터 비롯되었으므로 현재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과거를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적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직무를 담당한 사관(史官)은 중국에서 이미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출현하였는데, 은허(殷墟)에서 출토된 갑골문(甲骨文) 자료를 통해서 보면 최소한 기원전 13세기의 상(商)나라 조정에서는 이미 '사(史)'나 '작책(作冊)'과 같은 사관이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 고대사의 시간적인 범위는 그 주요한 내용이 선진시대의 역사부분을 주로 다루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공간적 범위는 '중원중심론(中原中心論)'의 견해에서 고대사 방면의 다양한 지역연구가 발전함에 따라 지금은 그 시야를 넓혀 중국 선진시대의 각 지역이나 민족을 모두 포괄해야만 하고, 또한 그렇게 했을 때에만 중국 고대사의 전모(全貌)를 모두 개괄할 수 있다.

만약 동주시대(東周時代)의 역사문화의 연구에 대해서 논하자면, 우리는 기원전 221년에 진(秦)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시기부터 다시 위로 거슬러 올라가고 또한 《사기(史記)》의 <십이제후연표(十二諸侯年表)>의 연대들 근거로 하여, 이 시기의 상한선을 서주(西周) 말의 공화원년(共和元年)인 기원전 841년으로 잡을 수 있다. 따라서 춘추시대(春秋時代)와 전국시대(戰國時代)를 포괄하는 동주시대(東周時代)는 기원전 841년에서 기원전 221년까지 모두 6백20년이 된다. 그리고 최근에 고고학 방면의 발굴에서 전국시대의 적잖은 간백서적(簡帛書籍)을 발견하였는데, 그 중에서 내용이 가장 풍부한 것으로는 당연히 호북성(湖北省) 형문(荊門) 곡점1호(郭店1號) 무덤에서 출토된 초간(楚簡), 상해(上海) 박물관에 소장된 초간(楚簡), 그리고 호남성(湖南省) 장사(長沙) 마왕퇴3호(馬王堆3號) 한묘(漢墓)에서 출토된 백서(帛書)들 꼽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중대한 발견은 마치 지하에 묻혀 있던 도서관

을 찾아낸 것과 같아서, 동주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더구나 학술(學術) 사상사(思想史) 분야에서는 그 영향을 더욱 크게 미치고 있다.

서주(西周) 말년에서 위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상(商)나라 후기의 왕인 반경(盤庚)이 기원전 1300년 즈음에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안양(安陽)의 은허(殷墟)에 천도한 시기에 이르게 되는데, 이 기간 또한 하나의 커다란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서주시대(西周時代)의 역사문화 방면의 연구는, 1976년 섬서성(陝西省) 부풍현(扶風縣) 장백(莊白)에서 발견된 사장반(史牆盤)과 2003년 섬서성(陝西省) 미현(郿縣) 양가촌(楊家村)에서 출토된 좌반(佐盤)을 참고할 수 있다. 이 두 점의 청동기에 나타난 명문들 통하여 모든 서주세계(西周世系)가 완전히 보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은허(殷墟)에서 갑골문(甲骨文)이 출토된 이후에 《사기(史記)》 <은본기(殷本紀)> 등과 같은 고문헌에 기록된 상왕(商王)의 세계(世系)와 서로 비교하여, 상나라 무정(武丁)에서부터 상나라 최후의 왕인 계신(帝辛)까지의 상왕(商王)이 실제로 존재했음이 이미 증명되었다. 이로써 상나라의 존재에 대해 더 이상 아무도 의문을 품지 않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이보다 시기가 더 빠른 고대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한 출발점을 제공해주었다.

그리고 반경(盤庚)이 은(殷)으로 천도하기 이전의 역사, 특히 하(夏)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는 단지 문헌에 보이는 단편적인 기록에만 근거해야만 하기 때문에, 지금도 한나라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학자가 여전히 있다. 그러나 50년대 말에 ‘하허(夏墟)’ 유적지를 조사하면서 정주상성(鄭州商城)보다도 더 시기가 빠른 언사현(偃師縣)의 이리두(二里頭) 유적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 유적지로 대표되는 이리두문화(二里頭文化)는 연대와 지리적 위치로 봐서 모두 하(夏)나라와 일치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 문화를 하문화(夏文化)로 여기고 있다. 그 후에 다시 뢰봉시(登封市) 왕성강(王城崗)에서 이 이리두(二里頭) 유적지보다도 더 빠른 시기의 성터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이 곳은 우(禹)임금이 도읍했던 양성(陽城)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하(夏)나라 이전의 역사에 대한 탐색에서는, 중국의 전통적인 관념은 문명의 시작을 기원전 3000년의 황제시대(黃帝時代)로 잡고, 여기서부터 계산하여 중국에는 5천년에 걸친 문명사(文明史)가 있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사기(史記)》에서는 황제(黃帝), 전욱(顓頊), 계곡(帝嚳), 요(堯), 순(舜)을 일컬어 ‘오제(五帝)’라고 하였는데, 최근에 몇몇 중국 문명의 기원을 연구하는 학자는 기원전 3천년에서 2천년 사이의 이 역사시기를 일컬어

‘오제시대(五帝時代)’라고도 부른다. 그리고 최근에 불고 있는 ‘석고(釋古)’의 새로운 경향에 따라 이백겸(李伯謙)이 제시한 ‘고고학에서 재건한 중국 고대사 체계와 전통사학의 중국 고대사 체계의 대응표’는 고대사, 특히 원고역사(遠古歷史)를 탐색하고 있는 중국학자의 새로운 경향을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중국 고대사의 연대학 방면에 대한 연구는, 중국의 ‘이홉 번째 국가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시행된 가장 중점적인 연구 프로젝트인 ‘하상주(夏商周) 연대구축 프로젝트(夏商周斷代工程)’를 꼽을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원래 9개의 큰 과제와 36개의 전문과제로 설정되었다가 나중에 모두 44개의 전문과제로 늘어났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역사학, 고고학, 천문학, 첨단과학 연대측정 기술 등의 10여개의 학문분야에 두루 걸쳐 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자연과학과 인문 사회과학이 총 망라된 하나의 커다란 여러 학계간의 교차연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2000년 상반기에는 각 과제의 성과를 종합하기 시작하여 《하상주(夏商周) 연대구축 프로젝트 1996~2000년 사이의 단계적 성과보고 간본(夏商周斷代工程1996~2000年階段性成果報告簡本)》을 초안하였고, 이미 출판까지 하였다. 그 후에 이 프로젝트는 각종 연구 보고서나 관련 논문 등을 망라하는 상관된 수많은 연구 성과물을 계속적으로 출판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프로젝트의 성과보고인 번본(纂本)의 정리편집 작업을 기본적으로 모두 완성하였고, 아마도 머잖은 장래에 곧 정식으로 출판되어 독자들 대면하게 될 것이다.

中國古史研究的現狀和趨向

李學勤（清華大學，中國，北京）

<目次>

- I. 中國有重視古史的傳統
- II. 中國古史的時限
- III. 中國古史的範圍
- IV. 東周歷史文化的研究
- V. 商晚期至西周歷史的研究
- VI. 夏至商前期歷史的研究
- VII. 夏以前歷史的探索
- VIII. 中國古史的年代學問題

I. 中國有重視古史的傳統

中國是一個有著悠久歷史的國家，也有著非常長遠的歷史文獻和歷史教育的傳統。

專門以書寫歷史為職務的史官，在中國出現甚早。根據多種古籍記載，這可以追溯到被稱為「人文初祖」的黃帝的時代，即約公元前三千年左右。如果說這不過是難於證實的傳說的話，至少在公元前十三世紀的商王朝廷裏，已經有「史」或「作冊」這樣的史官在活動，見於殷墟出土的甲骨文。

史官或與之有關的人員，被任用於教育工作。最近發現的西周早期青銅器榮仲方鼎，銘文記述了名叫榮仲的人在周王給他建立的學校中教授王子和諸侯子弟的事跡，而這位榮仲就出身於「史」的氏族。

到春秋時期，各種體裁的史籍被用於教育，例如《國語》〈楚語〉記載，楚莊王命士亶擔任太子的老師，士亶去請問賢大夫申叔時，申叔告訴他教太子的科目，其中有「春秋」即史書，「世」即譜牒，「語」即《國語》一類分國記述，「故志」即有關前世成敗的專篇，這些都是歷史文獻，

在教育中已有重要作用。

對歷史的重視，一直是中國傳統文化的特點。古時學者大都主張經、史應該並重。甚至規定讀書必須「剛日讀經，柔日讀史」。即使是「蒙學」即兒童的教材，歷史知識也佔有相當大的比重。比如最普遍流行的兒童讀物《三字經》，敘述歷史的內容竟有約三分之一，以致民間稱之為「小綱鑑」，也就是史書縮影的意思。

中國傳統上重視歷史，尤其突出的是重視古史，即中國歷史的開首部分。這是由於歷史和文明是在古代起始的，要認識今天必須追溯到過去。正與研究西方一定要探索希臘、羅馬，甚至古老的近東一樣，中國的古史對理解現代中國也具有特殊的意義。

II、中國古史的時限

上面我們已經談到中國的「古史」，希望大家能夠注意到這和在中國通常使用的「古代」一詞有很大的區別。

在中國，也包括港臺地區，常常說到的「古代」，並不是我們這次會議講的「Ancient China」，也不是美國一些學者講的「Early China」（指佛教傳入前的中國）。中國很多人說的「古代」，所指歷史時間要長得多，實際上是相對「近代」而言的。

大家了解，很久以來中國學術界是以公元1840的鴉片戰爭作為中國「近代」的開端的，因而1840年以前人們就說是「古代」，而明朝和清朝前半便算是「古代」的歷史了。現在的問題是，在近幾年，中國不少研究近代史的學者改變了觀點，提出以1911年的辛亥革命作為「近代」的起點，這樣，整個清代就都歸入「古代」了。「古代」如此漫長，顯然不便於研究。

其實，很多人知道，上世紀五六十年代在中國盛行的「古代史分期問題討論」，所說的「古代」已經像上面所說是廣義的。當時的討論的理論基礎，是馬克思主義的五種生產方式的社會形態論（原始社會、奴隸社會、封建社會、資本主義社會、共產主義社會），而其焦點在於中國歷史什麼時候是奴隸社會到封建社會的轉變過渡，出現了西周封建論、戰國封建論、秦漢封建論、魏晉封建論等等說法，爭論激烈。

到了「文化大革命」結束以後，中國學者更多強調要深入研究中國歷史各個時期的特色和實質。不管是在通史編著還是專題研究中，學者們逐漸形成一種共識，即秦的兼並六國，建立帝國是歷史的重要界標，在這之前之後，中國歷史有著明顯不同的性質，於社會、政治、文化等

等方面都有清楚的表現。

秦代以前的歷史，中國學術界通稱為「先秦史」，是相當於「Ancient China」的歷史階段。最近，我們在中國先秦史學會的會議上，曾就此作過討論。我覺得我們這次會的討論主題也就是先秦時期的中國，用中文說最好是中國的「古史」，以免與廣義的「古代」混淆。

III. 中國古史的範圍

在談過中國古史的時限以後，我想再說一下中國古史所涉及的空間的範圍。在這一方面，「文化大革命」以後的中國學者也有新的進展。

傳統上論述中國古史，總是以黃河流域的中原地區為主要的著眼點。這種被稱為「中原中心論」的看法，其產生不是沒有原因的。《史記》〈貨殖列傳〉就說過：「昔唐人都河東，殷人都河內，周人都河南。兼三河在天下之中若鼎足，王者所更居也，建國各數百千歲。」虞夏商周所謂「四代」的政治中心都在中原的核心地帶，這賦予「中原中心論」以相當有力的理由。

「中原中心論」還受到在中國傳統文化中居中心地位的儒學思想的影響。開創儒家的孔子，生於周王室衰微，諸侯力政的時代，從而力主「內華夏而外夷狄」，貫徹在所修《春秋》經中。這種觀點，由於長期存在的歷史原因，一直在後世學者間流傳，以致總是低估華夏以外民族和地區的作用地位。主張「中原中心論」的人們顯然有意無意地陷於這種看法的限制。

在考古學方面，「中原中心論」還是早期田野工作涉及範圍有限造成的結果。由於二次大戰前中國的考古發掘主要集中於中原地區，對中原以外考古文化的認識較少，從而對非中原地區存在比較高度發展的文化總是持保留態度。

一個典型的事例是四川成都平原三星堆文化的發現。早在1929年（或說1931年），在成都以北的廣漢月亮灣，當地農民掘地得到一坑玉石器，包括璧、圭、璋、琮等物。1934年，華西大學博物館的學者前往清理發掘，多數人局限於四川沒有古老文化的成見，竟認為是漢代的。最有卓識的，也只推斷為「周代早期」。直到近年，經考古學者多次發掘，特別是1986年距月亮灣不遠的三星堆兩座器物坑的發現，出土了大量青銅器、玉石器等等珍貴文物，總證實那裏是非常重要的商代城址。類似的事例還有許多。

現在中國學術界已經形成了一種公認的看法，即中國自古以來是一個多民族、多地區的國家，而中國的文明是由多民族、多地區共同締造的。在這種觀點的引導下，古史方面的區域研

究興盛起來。開始較早的，有如吳越文化、巴蜀文化；特別繁榮的，有如楚文化。中原地區也被視為一種區域文化，有人稱之為河洛文化，但這個詞包容的範圍要小些。

因此，今天我們來談中國的古史，應當把視野擴大到中國當時的各個地區和民族，纔能概括古史的全貌。

IV. 東周歷史文化的研究

中國古史既然如此漫長，範圍又非常廣大，所以我們最好根據歷史本身的情況以及所能遺留給我們的訊息的性質，把它劃分為幾個大的時期。各個時期，有不同的研究途徑和手段，也有不同的中心問題。

如果我們從公元前221年秦的統一中國向上推，東周（包括春秋和戰國）可以算一個大的時期。或者，也許應當採取《史記》〈十二諸侯年表〉的辦法，把這一時期的上限移到西周末的共和元年，即公元前841年。由公元前841年到前221年，一共有六百二十年。

這個大時期的特點，是我們可以依據的文獻較多。在這個意義上，這六個多世紀屬於「歷史（history）」，而不是「史前（prehistory）」或「原史（protohistory）」。

比如我們有《春秋左傳》，有《戰國策》，還有各種多樣當時的或稍晚但有關的典籍，可資稽考。

自然大家不會忘記秦始皇三十四年（公元前213年）頒佈的「焚書律」，禁止「詩書百家語」。實際上，這是秦國早已存在的政策趨向，看《商君書》和《韓非子》便可明白。「焚書律」因漢承秦制，直至漢惠帝四年（公元前191年）纔正式廢除。現在從發掘出土的墓葬隨葬書籍看，凡在「焚書律」有效時間內的，都不逾越該律規定的範圍，可見這一嚴酷的法律確實有效。對「詩書百家語」的禁止，造成東周時期產生的文化成果大量喪失，儘管漢代學者傾力挽救，仍不能彌補已有的損害。

幸運的是，近年在考古工作中發現了戰國時的不少簡帛書籍，還有若干漢代簡帛也含有戰國著作的抄本，都是前所未見的。其中內容最豐富的，當推湖北荊門郭店一號墓的楚簡、上海博物館收藏的楚簡，還有湖南長沙馬王堆三號漢墓的帛書。這些重大發現等於打開了地下的圖書館，對研究東周時期歷史文化有非常重要的作用，尤其是在學術思想史方面影響深遠。

郭店簡的主要內容，是儒道兩家的學術著作，上博簡的情況也是一樣。郭店一號墓的下葬年代不遲於公元前300年，上博簡較之最多稍晚一點，所以這些富於哲理性質的作品都是孟子或莊

子有可能讀過的，其重要性可想而知。不僅如此，將郭店簡、上博簡、馬王堆帛書與傳世典籍對比，又可以證明很多過去遭受學者懷疑的傳世文獻，例如《禮記》和《大戴禮記》中的一系列篇章，其實是與這些簡帛同時的。於是，以往幾乎成為空白的孔孟之間、老莊之間的思想傳統，一下子得到了充實。這也使我們有可能更為接近孔子、老子的本來面貌，當然是歷史研究上的大事。同時，由於孔孟、老莊的時代是中國經典的形成時期，這方面研究會影響整個中國學術思想史。

大家都不會忘記，錢穆先生《先秦諸子繫年》一書在東周古史研究中所起的重要作用。今天，在新的材料和觀點基礎上，重編一部這樣的《繫年》條件業已成熟了。

V. 商晚期至西周歷史的研究

由西周末年上推，一直到商代晚期商王盤庚遷都於殷即在今河南安陽的殷墟（約公元前1300年），是又一個大的時期。

這一時期保存下來的文獻，比東周時期要少許多，有著很多模糊不清的成份，但是幸而有甲骨文和金文的發現，給了我們揭示這一時期歷史奧秘的條件。

殷墟的甲骨文於1899年被發現鑒定，是學術史上極有紀念意義的事件。迄今為止，殷墟的有字甲骨已發現約十三萬餘片，所記內涵十分廣泛，有關研究已成為國際性的專門學科。西周甲骨文到五十年代纔有發現和破譯，數量遠不如商代，但也有重要內容。

殷墟甲骨文的年代，已證明上起武丁，下至帝辛即商代最後一王紂。甲骨文研究最重要的貢獻，是確切說明《史記》〈殷本紀〉等古書裏的商王世系基本真實，只有個別地方須做修正，從而證實商代的存在不容置疑，這成為大家上溯更早的古史的起點。

商代已有青銅器銘文即金文，但一般都很簡短，西周金文則遠更豐富，是研究當時歷史文化的重要史料。篇幅最長的是清代出土於陝西岐山的毛公鼎，現在臺北的故宮博物院，銘文長達四百九十七字，以致學者以為足抵《尚書》一篇。金文長度的這一紀錄迄今尚未打破。

西周金文雖然非常繁多，然而長期以來未能像殷墟甲骨文那樣對西周的周王世系提供完整的證明。1976年陝西扶風莊白發現的史牆盤，銘文敘及文王、武王、成王、康王、昭王和穆王，是共王時器，這只是世系的前半。直到2003年，陝西郿縣楊家村出土匭盤（有人稱為述盤），是宣王時器，銘文在穆王後更有共王、懿王、孝王、夷王和厲王，終於可說把西周世系補足了。

甲骨文、金文的分期斷代，是利用這些材料探索歷史的必要前提，目前都已取得很好的成果，這裏不可能詳作介紹。應該提到的是，在中國作為重點科研項目的「夏商周斷代工程」，已經制定了以金文為主的「金文曆譜」。這一曆譜雖然尚有不盡理想之處，從排出後新出現的金文大多合譜看，還可說是迄今最適用的，可供研究西周的學者參考。

VI. 夏至商前期歷史的研究

與商代晚期不同，盤庚遷殷以前的歷史，現在還沒有發現像殷墟甲骨那樣的文字證據。雖然商王世系已經證明，但只憑文獻的有限記載，大家對商代前期歷史所知不多。

夏代的情形更有甚之。《史記》〈夏本紀〉同〈殷本紀〉一樣，載有夏王的世系，而且能和《世本》等文獻相印證。王國維先生在研究了甲骨文的商王世系之後，在1925年曾說：「《史記》所述商一代世系，以卜辭證之，雖不免小有舛駁而大致不誤，可知《史記》所據之《世本》全是實錄，而由殷周世系之確實，因之推想夏后氏世系之確實，此又當然之事也。」這一推論，應該講是有道理的。

五十年代初，考古學者在河南鄭州（還有輝縣）找到了早於殷墟的商前期文化遺址，即現在公認為當時都邑的鄭州商城。五十年代末，於調查「夏墟」時發現了更早的偃師二里頭遺址，以之為代表的二里頭文化在年代與地理位置上均合於夏，多數學者認為是夏文化。隨後又發現更早的登封王城崗城址，同禹都陽城頗覺相當。近年在山西臨汾發掘的陶寺城址，年代早到公元前2600~2200年，有學者主張是文獻裏的堯都平陽。

夏到商前期的研究，肯定有別於商的晚期。當前仍有學者認為夏朝並不存在，表明這個方面的研究很有繼續深入的必要，而所採取的途徑一定不能同於商晚期和西周。

VII. 夏以前歷史的探索

中國傳統觀點認為文明始於公元前三千年的黃帝時代，從而說中國有五千年的文明史。黃帝、顓頊、帝嚳和堯、舜，是《史記》講的「五帝」，所以近年若干探討中國文明起源的學者把公元前三千年到兩千年左右這一段歷史稱作「五帝時代」。

關於文獻中記述的五帝時代史事，大家知道，會有很多學者認為只是後人撰作，並無真實依據。早在1909年，日本著名學者白鳥庫吉發表《中國古傳說的研究》，否定堯、舜、禹是歷史上實有的人物，被稱為「堯舜禹抹殺論」。在中國，1923年開始的《古史辨》（第一冊於1926年出版）疑古思潮，也是以類似的討論揭幕的。

中國二、三十年代的疑古思潮，有著文化史上的進步意義，但在否定古史傳說之後，怎樣正面地探求古史真相，仍是重大的問題。當時有的學者已經指出這一思潮的不足，如王國維在1925年便講到：「疑古之過，乃併堯舜禹之人物而亦疑之。其於懷疑之態度及批評之精神不無可取，然借於古史材料未嘗為充分之處理也。」他主張：「上古之事，傳說與史實混而不分。史實之中固不免有所緣飾，與傳說無異，而傳說之中亦往往有史實為之素地。」，而要揭示史實素地，必須採用「紙上之材料」（傳世文獻）與「地下之新材料」互相結合的「二重證據法」。這為重建古史開闢了道路，也是後來中國古史研究和考古學、古文字學密切聯繫的先聲。

對文獻記載中所見古史傳說給以現代的科學的解釋，用哲學家馮友蘭先生的話說是「釋古」。最近我們看到北京大學考古學家李伯謙先生的論作〈考古學視野的三皇五帝時代〉（見《古代文明研究通訊》第36期，2008年3月），他給出了下列的表及說明：

考古學重建中國古史體系與傳統史學中國古史體系的對應表

考古學的中國古史體系	傳統史學的中國古史體系	年代 (B.P)	社會形態	主要經濟生活方式
舊石器時代早期	有巢氏、伏羲氏	約二百萬年~二十萬年	遊園	採集、漁獵
舊石器時代中期	伏羲氏	約二十萬年~四萬年	原始群	漁獵、採集
舊石器時代晚期	燧人氏	約四萬年~一萬二千年	氏族	漁獵、採集
新石器時代早、中期	神農氏	約一萬二千年~七千年	氏族、部落	漁獵、農業、畜牧業
新石器時代晚期	炎帝、黃帝	約七千年~四千五百年	部落聯盟、古國	農業、畜牧業、手工業
新石器時代末期	顓頊、帝堯、堯、舜、禹	約四千五百年~四千年	王國（初級）	農業、畜牧業、手工業
青銅時代	禹、夏、商、周	約四千年~公元前221年	王國（高級）	農業、手工業、商業
鐵銅時代	秦~清	公元前221年~公元1911年	帝國	農業、手工業、商業

「儘管兩個系統使用的符號不同，也不敢說表列的對應關係沒有一點差錯或存在前後遊移的餘地，但從人猿揖別、人類社會出現以來，兩者由低級到高級的發展規律基本相同，每個大體相對應的階段所表現出來的特徵基本相同，從而決定了無論是考古學構建的古史體系還是傳統史學的古史體系都具有自己的合理性。考古學構建的古史體系固然是科學有據的，沒有或甚少文字記載或僅有通過口耳相傳的神話、傳說形式留傳下來的古史體系也不能說全是子虛烏有，正如尹達先生所言，這些神話、傳說都有史實的素地，都在一定程度上反映了歷史的真實。拂去附著其上的荒誕不經的塵垢，便可揭示出其合理的內核。」

我覺得，李伯謙先生此文代表了中國學者探索古史，特別是遠古歷史的新趨向。

VIII 中國古史的年代學問題

上引李伯謙先生的表，已經涉及中國古史的年代構架。這裏，想簡單介紹一下很多學者關心的「夏商周斷代工程」。至於其詳細情況，有韓國趙容俊碩士專文討論。

「夏商周斷代工程」是中國九五期間的重點攻關項目，從1996年5月啟動，經過五年左右的努力，到2000年10月通過了國家驗收並獲獎。它是用自然科學和人文社會科學相結合、多學科交叉研究的方法來研究夏、商、西周的年代學問題。

歷史上有許多事件需要從量的方面給出一個尺度。沒有時間就沒有歷史，歷史是時間的流程，在這個流程中給出一個量度來是很重要的。為什麼要研究中國古史的年代學問題呢？這是因為中國古史和世界其他國家的古代歷史一樣，它的精確年代只能推算到一定的時段，愈遠的就愈不清楚。越古老的歷史，我們得到的信息越少。在司馬遷《史記》〈十二諸侯年表〉中，中國的歷史一直可以往前推到公元前841年，即西周晚期的共和元年。大家都知道，這一年，因為周厲王暴政，國人起來趕走周厲王，實行共和執政。但是，再往前的年代在司馬遷的《史記》〈三代世表〉中只能以世為單位，不能以年為單位了。出現這種情況，並不是說司馬遷那個時代沒有關於上古年代的資料，據司馬遷本人記載，他看的一些諜記中「自黃帝以來皆有年數。」，只不過這些年代資料是相互矛盾的，不一致的，所以司馬遷只編了〈三代世表〉，夏、商、西周（共和前）三代只有帝王世系而沒有具體年表。有人說《竹書紀年》是準的，王國維先生說這本書就是一種諜記，司馬遷肯定是看過的，但是出於謹慎的考慮，司馬遷也沒有採用。中國的歷史只推到公元前841年是不符合需要的，因為中國有五千年的文明史，《史記》只記錄到公元前

841年，相差甚遠。因此，司馬遷以後，歷代都有學者試圖推算出公元前841年以前的年代，其中最早的是西漢末年的劉歆。這是一個非常重要的課題，但一直都沒有定論。現代的學者如何在前人研究的基礎上，利用最新的考古資料和科技手段，對年代學研究做出新的貢獻，已經成為迫切的需要。

1995年春天，當時擔任國家科委主任的宋健先生首先提出這個課題。為什麼是宋健先生提出，而不是考古學家或是歷史學家呢？這與宋健先生的工作有關。他長期主管科技工作，本身是兩院院士，並對中國的歷史有很深厚的修養。他到國外訪問時，經常考察國外的考古遺迹，參觀國外的博物館。他發現，外國古文明大都已建立了詳細的年表，並獲得世界公認，可中國一直沒有詳細、公認的年表。所以，他一直在思考：能不能用自然科學技術已有的優勢，來支持人文社會科學的研究，特別是歷史學、考古學的研究，從而建立中國古代文明的年代學。1995年9月，宋健先生邀請在北京的有關歷史學家、考古學家、古文字學家就這一課題進行座談，提出了「夏商周斷代工程」。到1995年年底，正式建立了這一課題，組成了由國家科委、國家教委、中國科學院、中國社會科學院、自然科學基金會、國家文物局、中國科協等不同單位的領導組成的領導小組，隨後組成了由二十一位多學科的知名專家組成的專家組，由四位首席科學家分別擔任專家組的正副組長。當時，「夏商周斷代工程」引起了國內外社會各界的廣泛關注，工程本身被列為國家「九五」期間的重中之重項目。工程在實施過程中，設計了9大課題，36個專題，後來隨著研究的深入發展，專題不斷增加，到2000年結題時，共有44個專題，涉及了歷史學、考古學、天文學、科技測年技術等十多個學科。所以這個工程是一個自然科學與人文社會科學相結合的多學科交叉研究。經過五年的努力，到2000年上半年開始把各個課題成果加以整合，起草了《夏商周斷代工程1996~2000年階段性成果報告(簡本)》，2000年秋天通過了驗收。其後，工程又陸續出版了許多相關的研究成果，包括各種研究報告、相關論文等等。近期，我們已初步完成了工程報告繁本的編纂整理工作，在不久的將來會出版與讀者見面。

「夏商周斷代工程」推出了一份夏、商、西周的年表。工程從公元前841年開始往前推，推定夏代始年為公元前2070年，夏商之交為公元前1600年，盤庚遷殷為公元前1300年，盤庚以後的小辛、小乙、武丁、祖庚、祖甲、廩辛、康丁、武乙、文丁、帝乙、帝辛都推出了具體的年代。商周之交也就是武王伐紂之年，工程推斷為公元前1046年，武王之後，成王、康王、昭王、穆王、共王、懿王、孝王、夷王、厲王都有了具體的年代。這是到目前為止中國學術界多學科專家聯合攻關所推出的比較理想的一份年表。當然，這不是定論，以後隨著更多相關考古材料的

出現，將會不斷地完善這份年表。工程年表公布之後，得到《辭海》等出版物的採用。

仔細比較一下，大家不難發現，中國的古代年表與古埃及的年表非常相似。中國的五帝時代與古埃及的古王國與第一中間期時代相似；夏代相當於古埃及的中王國與第二中間期時代；商代相當於古埃及的新王國時期的盛期，年數的上下限基本上不超過一百年，甚至有的不超過二三十年，這說明人類的發展是有規律的。「夏商周斷代工程」給出了一個比過去更有科學根據的時間量度，這個量度的確定對於我們探討整個中國文明的起源和早期發展打下了良好的基礎。

中國古史是整個世界歷史的一部份。今天在這裏舉行的會議，以中國古史為主題，使我有機會向韓國和各國來的專家請教，我感到十分高興。以上所說，希望大家給予指正。

중국 고대사 연구의 현황과 추세

이 학근 (清華大學, 中國, 北京)

【中文摘要】

中國傳統上重視歷史，尤其突出的是重視古史，即中國歷史的開首部分。這是由於歷史和文明是在古代起始的，要認識今天必須追溯到過去。專門以書寫歷史為職務的史官，在中國出現甚早，至少在公元前十三世紀的商王朝廷裏，已經有「史」或「作冊」這樣的史官在活動，這可以見於殷墟出土的甲骨文中。

中國古史的時限，其主要是談先秦時期的歷史部分。其空間的範圍，則從「中原中心論」的看法，隨著古史方面的區域研究興盛起來，現已應該推到中國先秦時期的各個地區和民族，這樣纔能概括古史的全貌。

如果談東周歷史文化的研究，我們從公元前221年秦的統一中國向上推，又依《史記》〈十二諸侯年表〉，上限移到西周末的共和元年，即公元前841年。這樣，東周（包括春秋和戰國）時期，由公元前841年到前221年，一共有六百二十年。近年在考古工作中發現了戰國時的不少簡帛書籍，其中內容最豐富的，當推湖北荊門郭店一號墓的楚簡、上海博物館收藏的楚簡，還有湖南長沙馬王堆三號漢墓的帛書。這些重大發現等於打開了地下的圖書館，對研究東周時期歷史文化有非常重要的作用，尤其是在學術思想史方面影響深遠。

由西周末年上推，一直到商代晚期商王盤庚遷都於殷即在今河南安陽的殷墟（約公元前1300年），是又一個大的時期。西周歷史文化方面的研究，我們可以參考在1976年陝西扶風莊白發現的史牆盤，以及在2003年陝西郿縣楊家村出土的匚盤，二件是西周的周王世系提供完整的證據。由殷墟出土了甲骨以後，和《史記》〈殷本紀〉等古書裏的商王世系互相印證，已證明上起武丁，下至帝辛即商代最後一王紂，從而證實商代的存在不容置疑，這成為大家上溯更早的古史的起點。

盤庚遷殷以前的歷史，尤其對夏代的歷史，因只憑文獻的有限記載，當前仍有學者認為夏朝並不存在。但五十年代末，於調查「夏墟」時發現了比鄭州商城更早的偃師二里頭遺址，以之為代表的二里頭文化在年代與地理位置上均合於夏，多數學者認為是夏文化。隨後又發現更早的

登封王城崗城址，同禹都陽城頗覺相當。

對於夏以前歷史的探索，中國傳統觀點認為文明始於公元前三千年的黃帝時代，從而說中國有五千年的文明史。黃帝、顓頊、帝嚳和堯、舜，是《史記》講的「五帝」，所以近年若干探討中國文明起源的學者把公元前三千年到兩千年左右這一段歷史稱作「五帝時代」。如今隨著「釋古」的新傾向，李伯謙先生的「考古學重建中國古史體系與傳統史學中國古史體系的對應表」，可謂代表中國學者探索古史，特別是遠古歷史的新趨向。

有關中國古史年代學方面的研究，中國「九五」期間的重中之重項目的「夏商周斷代工程」，則原設計了9大課題，36個專題，後來增加到共有44個專題。該工程涉及了歷史學、考古學、天文學、科技測年技術等十多個學科，可謂一個自然科學與人文社會科學相結合的多學科交叉研究。到了2000年上半年，開始把各個課題成果加以整合，起草了《夏商周斷代工程1996~2000年階段性成果報告(簡本)》，並已經出版了。其後，工程又陸續出版了許多相關的研究成果，包括各種研究報告、相關論文等等。近期，已初步完成了工程報告繁本的編纂整理工作，在不久的將來會出版與讀者見面。

【Abstract】

On the Studies of Ancient History of China - Yesterday and Today

Li Xieqin(Tsinghua Univ./China)

China traditionally emphasizes history, especially ancient history, i.e. the beginning of Chinese history. This is because history and civilization began in ancient time, and to understand today one must look back. Historiographer specializing in writing history appeared very early in China, and at the latest in the 13th century BC there had been historiographers called “history keeper” or “history recorder” in the court of Shang Dynasty, which could be seen in the characters on tortoise shells and ox bladebones from the Yin Ruins.

In time, the Chinese ancient history mainly deals with Chinese history before Qin Dynasty. And in space, according to the perspective of “Centrality of Central China”, and along with the flourishing of regional study in ancient history, it should be expanded now to include all the regions and ethnic groups before Qin Dynasty, and only by this can it epitomize the Chinese ancient history.

Talking of the study of Eastern Zhou’s history and culture, we trace back from Qin’s unification in the year 221 BC, according to *Chronicles of the 12 Princedoms* in *Shiji*, to the 1st year of the Republican Period, i.e. the year 841 BC. Thus East Zhou (including the Period of Spring and Autumn and the Period of Fighting Princedoms), from the year 841 BC to the year 221 BC, lasted for 620 years. In recent years, during archaeological

excavations, many books on bamboo and silk of the Period of Fighting Princedoms were discovered, the Chu bamboos in Guodian Tomb No.1 of Hubei's Jingmen, the bamboos collected by Shanghai Museum and the silk books in Mawangdui Tomb No.3 of Han Dynasty of Hunan's Changsha being the richest in content. These great discoveries opened the underground library, and were of profound importance in the study of Eastern Zhou's history and culture, especially in academic history and intellectual history.

From the last years of Western Zhou, back to the year King Pan'geng moved the capital to Yin, i.e. the Yin Ruins (around the year 1300 BC) in Henan's An'yang of today, in late Shang Dynasty was another grand period. In the study of Western Zhou's history and culture, we can consult the Plate of History Keeper Qiang discovered in Zhuangbai of Shanxi's Fufeng in the year 1976, and Zuo's Plate excavated in the Village of the Yang Family of Shanxi's Mei County, both of which provided complete evidences for Western Zhou's royal lineage. After tortoise shells and ox bladebones were excavated in the Yin Ruins, the royal lineage of Shang Dynasty on them and that in ancient books such as *Han's Royal History* in *Shiji* confirmed each other, and proved that Shang Dynasty lasted from Wuding to Dixin, i.e. the last king Zhou, thus approved Shang Dynasty's undoubted existence, which became the starting point for us to trace further back in Chinese ancient history.

Some scholars still do not believe the history before Pan'geng moved the capital to Yin, especially the history of Xia Dynasty, due to the limited literature record. But in the late 1950s, the Erlitou Site in Yanshi which dated earlier than Zhengzhou's Shang City ruins was discovered during the survey of the "Xia Ruins", and the Erlitou Culture represented by it fits Xia Dynasty in time and location, so most scholars thought that it was Xia Culture. And earlier King City Hill ruins in Dengfeng was discovered later, which was thought comparable to Yu's Capital Yangcheng.

As to the exploration of the history before Xia Dynasty, it is traditionally hold in China

that civilization dated from the Huangdi Period around the year 3000 BC, thus China has a civilization of 5000 years. Huangdi, Zhuanxu, Diku and Yao and Shun are the so-called "Five Emperors" in *Shiji*, so in recent years several scholars discussing the origin of Chinese civilization called the period from the year 3000 BC to the year 2000 BC the "Period of Five Emperors". Nowadays along with the new inclination of "Interpreting the Antiquity", Mr. Li Boqian's *Correspondences between Archaeologically Reconstructed System of Chinese Ancient History and the Traditional Historical System of Chinese Ancient History* represents the new tendency among Chinese scholars in the exploration of the history of Chinese antiquity, especially remote antiquity.

As to the chronological study of Chinese ancient history, the "Xia-Shang-Zhou Confirmation Project", the most important project during the period of China's "9th Five-year Plan", originally proposed 9 grand tasks and 36 subjects, which later increased to 44. This project involved more than 10 disciplines such as history, archaeology, astronomy, scientific detection of time, thus can be called a kind of multi-disciplinary cross-study which combined sciences,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2000, the integration of achievements in all the tasks was started, and the *1996-2000 Period-achievements Report of the Xia-Shang-Zhou Confirmation Project (Simplified Edition)* was drafted and had been published. After that, many related research achievements of the project were published successively, including various research reports, related treatises and so on. Recently, the preparatory compilation and arrangement of the complex edition of the project report has been completed, and it will be published in the near future.